

직원/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존중 수칙

인권침해 유형

- 

☑️ 폭언
폭력 뿐만 아니라 욕설,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
- 

☑️ 폭력
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, 정신적·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행위
- 

☑️ 공포심 불안감 유발
악의에 찬 언어로 위협하는 행위
- 

☑️ 성추행/성희롱
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행위

존칭을 사용하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여 함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.

직원/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존중 수칙

인권침해 대응방법

- 단계 : 자제요청 및 즉시 경고

☑️ 폭언(고성, 욕설, 모욕, 협박, 성희롱 등)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, 이런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.
 - 단계 :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

☑️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, 녹화를 실시한다.
 - 단계 : 응대종료, 경찰신고

☑️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,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,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. 피해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 보고 하고, 6하원칙에 의거, 문서로 작성한다. (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)
- ☑️ 1단계에서 **위기/응급상황**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**경찰신고**를 한다.

☎ 신고는 112